장르별 기획공연 '관객 눈높이에 맞게'

▶ 익산예술의 전당 내년 업무운영 방향 발표

1월 개최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공연부터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연말공연까지 선보여

미술관은 특별기획전 문예아카데미 등 운영

익산예술의전당이 내년 업무운영 방향 및 기획사업안과 올 한해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가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빈 소년합창단'.

익산예술의전당(김병재 소장)은 내년 업무운영 방향 및 기획사업안과 올 한해의 성과를 발표했다.

전당은 문화예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객개발 방안 마련, 초대권 없는 공연장으로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 우수 작품 선점과 홍보 마케팅 강화, 대형공연 공동사업 추진 등으로 업무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최신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유료 공연 관람문화 정착에 노력하며, 우수 공연을 조기에 섭외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최상 공연장 기반 마련, 기업체 등과 공동사업을 통한 대형공연 유치 기회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당에 따르면 기획사업 분야의 경우,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지역예술을 선도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연극 에쿠우스·LDP 현대무용·여름밤음악회 산책음감·미술관음악회 등 34회 기획공연에 만 8,000여 명이 관람객이 찾았다고 집계했다.

또 지역관객의 회원 확보에도 주력하여 3월 말까지만 해도 500여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올 11월 말에는 천 600여명으로 늘어나 8개월 동안에만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당의 대내외 이미지를 구축한는 성장기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클래식·콘서트·뮤지컬·창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관객 맞춤형으로 프로그래밍해 20여 편으로 구성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1월)를 시작으로 첼리스트 정명화·피아니스트 손열음·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로 구성된 세대를 아우르는 트리오의 실내악 공연(4월), 가족의 달 부모님들을 위한 '효 콘서트'(5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크리스마스 콘서트'(12월) 등의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술관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기획전·교류전·어린이 체험전·문화예술아카데미·전문인력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8월에는 이리역 폭발사건 40주기를 맞아 지역의 아픈 기억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조명한 아카이브 형식의 전시를 열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연극상 대상에 강택수씨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제33회 전북연극상 대상수상자로 강택수(연극행정/연기·사진)씨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일백만원이 수여된다.

연극협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강택수 씨는 1978년에 전라북도 대학연극협의회를 창립(초대회장)하여 전북대학연극제를 개최하며 척박했던 전북현대연극에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장(1989-1992)을 역임하며 전국연극인 대회를 개최, 전국연극인들의 교류와 친목도모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지난 40여 년 동안 전북연극 발전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해왔기에 2016 전북연극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6시 전주부빔온(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동1층)에서 열린다.

**문의 063)277-7440.

한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노강욱(직장인 연극반)

▲특별상-윤승미(음악감독/작곡), 하형래(기획/연기), 황진남(조명)

▲전북연기상-극단 명태·박나래미, 문화영도 관·성상희, 극단 까치동 ·김정훈 (신인연기상) /정해은 기자

▶▶ 신 간 도 서 ◀◀

금서 조치, 권력자가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통제 수단

주쯔이 '단 한 줄도…'

우리는 문학을 비판할 수 있다. "결론 내리는 건 독자의 몫"이라는 보들레르의 말처럼 작가가 문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독자 역시 그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검열은 다른 문제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잣대를 들이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작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력자들이 검열의 칼날을 얼마나 많이 휘둘렀는지를 통해 당시 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금서목록, 중국 진시황의 분서갱유, 히틀러의 분서 만행 등 사회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 수많은 책이 찢기고 불태워졌으며 작가는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해가 될 만한 새로운 가치와 사상의 싹을 없애려 했다. 금서 조치는 그들이 가장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통제 수단이었다.

이가운데 우수도서 보급·선정 과정에서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제의 도서를 배제하고, 9437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예술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정부지원금을 오히려 예술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작가들은 수많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펜을 무기 삼아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사회 갈등을 풍자하고 악행과 부조리를 고발해왔다. 살만 루슈디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은 그것을 쓰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에밀 졸라는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말할 권리가 있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했다.

책 '단 한 줄도 읽지 못하게 하라'는 기원전 410년 '리시스트라타'부터 1988년 발표된 '악마의 시'까지, 문학의 역사에서 자행된 이른바 문화 방화 사건들을 당시 작가 및 주변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풍부한 원문 인용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중국 작가 주쯔이는 책을 통해 금서로 지정된 이유를 사회 비판과 대중 선동,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통제, 풍기문란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어떤 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금서로 지정됐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한다.

**허유영 옮김, 464쪽, 1만6800원, 아날로그 /뉴시스

'혼이 비정상' …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 왜 나왔을까?

최종희 '박근혜의 말'

'참 나쁜 대통령', '혼이 비정상', '솔선을 수범해서'…. 주어 동사가 맞지 않는 문법 파괴,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 주술적 언어 등은 지난 4년간 온 국민들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었다.

사상 초유의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사용해온 언어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풀어나가는 책이 나왔다. 우리말 연구자인 최종희 언어와생각연구소 공동대표가 쓴 '박근혜의 말'(원더박스).

애초 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는 오히려 독특한 말이 기여한 부분도 컸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 피습 당시 병상에서 "대전은요?"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자신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예는 대표적이다.

그러나 탄핵을 목전에 맞은 지금 박 대통령의 언어는 오히려 그간 벌어져온 최순실 국정농단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주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하자, ~하겠다' 대신 '~이다, ~해야 한다' 등으로 타인에 대한 평가나 지시가 주종을 이루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자신을 주체에서 배제시키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설명된다. 또 단어 수준의 짧은 문장이 아닌 경우 길게 늘어지는 만연체의 문장은 주로 과시적, 권위적 성향을 보이고 의사결정이 모호한 이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혼이 비정상', '우주의 기운' 등 주술적인 언어가 등장하는 박 대통령의 언어는 40년 전 최태민과 함께 활동하던 당시의 언어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언어는 청와대에서 자란 성장기, 양친 모두 총탄에 잃은 가족사, 최태민과의 만남 등 자신의 언어 사회와 과정 및 한국 정치사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배신의 트라우마 등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들도 화법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평범하지 않았던 가족사와 어린 시절의 충격적 체험이 남긴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박근혜의 마음을 할퀴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심각한 자아 분열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체 수단 즉 자신을 지탱해 줄 목표와 존재 이유가 필요하다. 내면의 갈등에서 나온 이러한 요구를 박근혜는 일기장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서 썼듯이 '소명'과 '하늘이 내린 뜻'이라고 이해했다. 박근혜의 이러한 마음의 행로, 심리 작동 기제를 가장 정확히 간파하고 부추기고 이용한 사람이 최태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207쪽) /뉴시스

▶▶ 공연 & 전시 ◀◀

조선시대 여인들의 생활상 엿보기

전통문화전당 '규방의 쓰임' 전 21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조선시대 여인네들이 수를 놓거나 책을 읽던 생활공간인 규방을 재현해 선보인다.

'규방의 쓰임'전으로 오는 21일까지 전주한옥마을 내 관광안내소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거 규방에 쓰였던 규방소품과 가구 등을 보여준다.

전시는 전통한옥의 온돌방을 그대로 재현, 전통의 향취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했다. 규방 안은 전통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만든 사방탁자와 거실장, 전통침선, 전통자수 등 다양한 규방 소품으로 채워졌다.

특히 도내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공예 작품들로 규방이 연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규방 내 사방탁자와 거실장, 경상 등 소목제품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소목장 故 조석진 명인의 생전 작품으로 꾸며졌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정상택 국장은 "규방이라는 공간 구성을 통해 전주의 전통공예와 수공예 솜씨를 맘껏 보여주고자 했다"며 "전주의 규방 문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훌륭한 가치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63)281-1512.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2월 19일〉

▷쥐띠
48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60년생: 이성을 대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7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긴다.
84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6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다.
7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베풀면 후에 큰 이득이 되어 돌아오니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라.
85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을 듯.

▷호랑이띠
5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62년생: 동료나 가까운 사람과 구설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7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6년생: 문서작성,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 좋은 날이다.

▷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으나 결과는 좋으니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63년생: 타인을 도와주면 공이 돌아온다.
75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일이 생길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 하지 말고 해결하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64년생: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좋은 자료를 제공받는다.
76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
88년생: 지금은 결실을 맺으려고 할 때가 아닌 준비하는 때이다.

▷뱀띠
53년생: 외부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니 주의하라.
65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화합이 필요하다.
77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윗사람과 함께 움직여라. 쉽게 얻을 수 있다.
89년생: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함과 초심을 잃지 말아라.

▷말띠
54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될 것이다. 대신 대가를 바라는 선행은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마라.
66년생: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원행할 일이 있으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침체 되어있던 운은 지나가고 활기찬 운이 도래하는 날.

▷양띠
55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좋은 운이다.
67년생: 무난한 운이다.
79년생: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운.
91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라. 좋은 결과가 따른다.
68년생: 잠재되어 있는 운이 표출되려면 적극 활동하라.
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어긋나면 때로는 잠시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
92년생: 체력적으로 소모는 많으나 거두어들이는 결실은 많지 않다.

▷닭띠
57년생: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이 맑지 않다.
69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하니 마음을 비우고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81년생: 상대방에게 원망을 들을 소지가 있으니 말을 삼가라.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개띠
46년생: 작은 문서를 잡거나 움직이는 것은 무방하나 큰 것을 움직이면 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58년생: 재물운은 좋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0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실수를 하거나 판단 오류를 범하지 말라.
82년생: 안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돼지띠
47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근심 걱정 할 일이 생기니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라.
59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3년생: 손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